

문화

■ 광주일보·문화재단 공동 문화나무 상상강좌 제5탄

“한탕주의 한국 공연계 거품투성이  
창작 뮤지컬·연극으로 미래 열어야”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콘텐츠개발과 한국 뮤지컬의 미래’

‘공연계의 미다스’ ‘못말리는 썸블러’ ‘뮤지컬계의 이단아’, ‘브로드웨이 박’...

언제부터나 그에게는 이런 수식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닌다. 평소 공연을 즐기는, 조금 느리지만 관객이라면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바로 해남 출신 공연프로듀서 박명성(50·명지대 영화·뮤지컬 학부 겸임교수) 신시컴퍼니 대표다.

‘아이디’ ‘썸블러’ ‘렌트’ ‘맘마미아’ ‘시카고’ 등 술한 대작들이 ‘베이트 인 박명성’이다.

지난 23일 광주일보와 광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한 ‘문화나무 상상강좌’의 여섯 번째 강사로 참석한 박 대표는 좌절과 성공을 맞본 공연프로듀서의 굴곡진 삶을 통해 ‘콘텐츠개발과 한국 뮤지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했다.

▲지금 뮤지컬 시장은 ‘거품 천국’=이날 박대표는 ‘작심한 듯’ 국내 뮤지컬 산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근래 몇몇 뮤지컬이 대박을 터트리자 많은 회사들이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면서 공연판이 일그러졌다는 것이다.

“이들 뮤지컬 문화인들이 ‘한탕’만을 노리고 흥행이 보장되는 브로드웨이 라이선스를 따내기 위해 엄청난 로열티를 배팅하고 있어요. 또한 일부 기획사들이 티켓과워가 확실한 ‘스타’들을 경쟁적으

로 캐스팅 하는 바람에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새로운 콘텐츠 발굴 등의 내실 보다는 ‘겉치레’에만 치중하는 건감치 않은 공연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문제는 과도한 로열티나 출연료가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제작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기획사들이 티켓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거품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먼지 많아 관객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어요.”

▲“창작뮤지컬·연극이 나의 미래”=지난 10년 간 한국 뮤지컬의 르네상스를 이끈 장본인인 만큼 그 역시 이 같은 자성의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추경두 카드가 창작뮤지컬과 연극이다.

국내 최초로 라이선스 공연을 시도해 쓸쓸한 재미를 봤지만 이제는 과감히 창작뮤지컬과 연극에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의욕 만큼 창작뮤지컬은 결코 녹록치 않다. 지난 2007년 무려 45억원의 제작비와 8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제작한 뮤지컬 ‘댄싱 새도우’(차범석 원작 ‘산불’)는 그에게 25억원 적자를 남겼다.

“20여년 전 차범석 선생의 연극 ‘산불’을 통해 배우로 첫발을 내딛었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댄싱 새도우’로 아픔을 겪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때 겪은 소중한 경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오기를 갖게 했어요. 많은 대형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 신시컴퍼니의 조직력, 노하우, 자본을 연극과 순수 창작뮤지컬에 재투자해 새로운 공연문화를 일궈내겠습니다.”

▲“광주판 레미제라블”을 꿈꾸다=박대표는 최근 또 하나의 ‘뮤지컬 드림’을 꿈꾸고 있다. 오랜 세월 ‘마음의 빛’으로 자신을 누르고 있던 ‘80년 5월’을 대형 뮤지컬로 제작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오는 2013년 첫선을 보일 예정인 이 뮤지컬 ‘오월의 봄’(가제)에는 유명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연출)씨와 토니작곡상을 수상한 브로드웨이 유명 작곡가 마크 홀먼, 서울연극제 희곡상을 수상한 고연욱씨 등이 참여하며 제작비만 무려 50억 원이 투입된다.

그는 지난 2006년 황지우씨의 ‘오월의 신부’를 뮤지컬로 제작하려고 했지만 원작의 틀을 깨기 힘들어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

박대표는 “오월의 봄은 ‘오월의 신부’와는 전혀 새로운 내용의 뮤지컬이 될 것”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최고의 스태프들을 끌어들이겠다”고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청자골 강진에 ‘학명미술관’ 개관

변변한 미술관 하나 없던 강진의 시골 마을에 번듯한 사립미술관이 들어섰다. 이곳 출신의 한 교수가 자신의 고향집을 고쳐 미술관을 개관했다.

조선대 금속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퇴임한 이효복(66)씨가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 ‘학명(鶴鳴)미술관’을 지난 23일 개관했다. 학 같은 선비의 기품을 닮고, 차향기 그윽한 미술관을 만들자는 뜻으로 미술관 이름을 ‘학명’으로 지었다.

월출산의 풍광과 어우러진 아담한 학명미술관은 190㎡ 규모의 전시장을 갖췄고, 돌담과 넓은 앞마당이 펼쳐져 있다.

이씨는 이곳에서 젊은 작가들을 위한 전시회를 열고, 지역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사할 계획이다.

그가 미술관을 꿈꾸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다. 월남리 일대에서 가장 큰 사랑채를 갖고 있던 이씨의 집에는 항상 시인 묵객들이 머물며 시와 노래를 노래했다.

이씨는 이들과의 인연으로 서예와 한국화 등 200여 점의 작품을 모으게 됐고, 좋은 작품은 더욱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생각에 미술관을 열게 됐다.

이씨는 “소장품을 집 안에만 두는 게 아까워 더욱 많은 사람들과 감동을 나누기 위해 미술관을 냈고, 지역민과 학생들을 위해 재미있는 문화 행사를 열겠다”고 말했다.

학명미술관은 뜻 깊은 개관기념전도 마련했다. 오는 7월 21일까지 전남대와 조선대,



강진 학명미술관을 개관한 이효복 전 조선대 교수가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효복 전 조대 교수 사비 털어 고향에 문화공간 마련

7월 21일까지 신진작가 16명 초대, ‘아썸 될성부른’전

호남대, 목포대, 원광대 등 6개 대학에서 추천받은 신진 청년 작가 16명을 초대해 ‘아썸 될성부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성민·김영일·인준교·김혁·박성완·박성용·박성진·박정희·김민성·서영기·배귀영·서영기·윤준영·이미지·황애리씨 등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사진 등

32점을 선보인다.

한편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한 서예가인 그의 부인 양희영씨가 관장을 맡고, 큐레이터 김시연씨가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시를 기획할 예정이다. 문의 061-433-557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스님들이 노래하고 춤춘다?

불교NGO 광주전남연대, 내달 1일 ‘맑고 향기로운...’ 공연

전국의 내로라하는 ‘가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생명과 평화를 애호하는 불교NGO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대표 법일스님)는 내달 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맑고 향기로운 노래 이야기’를 주제로 뜻깊은 공연을 펼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스님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남 미황사 주지인 금강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광주출정가’와 ‘꽃아 꽃아’의 작곡가 범능스님(속명 정세현·불지 불교문화원장)이 ‘들길’ ‘무소의 뿔처럼’ 등 명상음악과 환경노래를 부르고, 심진 스님과 도신 스님이 ‘죄인의 노래’ ‘짜릿길’ 등 생명과 평화를 생각하는 노래를 선사한다.

미국 등지에서 순회공연을 펼쳐온 정을스님이 ‘무상’ ‘신아리랑’ 등 성악을 들려주고, 가야금병창을 구성지게 하는 다솔 스님



‘범능스님’

은 수궁가 중 ‘고고천변’ ‘진도아리랑’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禪)무용단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2011’ 아름다운 춤을 선보이고 한바탕 선원 어린이합창단도 함께해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223-362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원중 달거리’ 공연  
이달엔 ‘보듬어주기’

매달 네번째 주 월요일 관객들을 만나는 ‘김원중의 달거리’ 6월 공연이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보듬어 주기’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초대 손님은 시집 ‘접시꽃 당신’으로 잘 알려진 도종환(사진) 시인이다.

이번 공연 역시 소리꾼 윤진광(광주시립국극단장), 김현옥(작곡가), 주홍(화가)씨가 함께 참여한다. 영화 속 노래 찾기, ‘해피버스테이 변주’, ‘샌드 애니메이션’ 등도 만날 수 있으며 지역 화가들이 참여한 무대 그림 역시 또 다른 볼거리다.

관객들이 자유롭게 내는 티켓값은 북한 어린이 들을 위한 빵 만드는 공장 돕기 성금으로 쓰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나무 상상강좌 6강 콘텐츠개발과 한국뮤지컬의 미래

● 일시 2011. 6. 23(목) 오후 4시 ● 장소 빛고을 시민문화관 다목적실 4층

지난 23일 빛고을 문화관에서 열린 ‘문화나무 상상강좌’에서 박명성 신시컴퍼니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패백실 / 패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부 페 ₩29,000 / ₩33,000  
양 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p>상무점</p> <p>1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p> <p>2관 위험한 상경례 (12세)</p> <p>3관 쿵푸팬더2 (전체)슈퍼에이트 (12세)</p> <p>4관 씨니 (15세)</p> <p>5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p> <p>6관 세미의 어드벤처 (전체)</p> <p>7-10관 리뉴얼 오픈 준비중</p> <p>리뉴얼 BIG EVENT</p> <p>매일매일 피곤이 강제 리뉴얼오픈기념 무료 상영회 (올빼미지 침착)</p> <p>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o.co.kr</p> <p>3,000원 저렴하게, 선택순 30분씩 이벤트 팝콘 증정</p>	<p>하남점</p> <p>1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p> <p>2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p> <p>3관 씨니 (15세)</p> <p>4관 씨니 (15세)</p> <p>5관 모비딕 (15세)</p> <p>6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p> <p>7관 풍산개 (18세)</p> <p>8관 슈퍼에이트 (12세)</p> <p>9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p> <p>10관 쿵푸팬더2 (전체)</p> <p>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p> <p>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p> <p>소중한 날의 꿈(전체)</p> <p>구.련약국사거리 ☎ 1544 - 0600</p>	<p>MEGABOX</p> <p>M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최고급관</p> <p>2관 풍산개 (18세)</p> <p>3관 모비딕 (15세)</p> <p>4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p> <p>5관 씨니 (15세)</p> <p>6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p> <p>7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p> <p>8관 쿵푸팬더2 (전체)</p> <p>9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p> <p>10관 슈퍼에이트 (12세)</p> <p>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p>●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p>	<p>CINUS</p> <p>1관 슈퍼에이트(12세)</p> <p>2관 쿵푸팬더2 (전체)</p> <p>3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p> <p>4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p> <p>5관 씨니 (15세)</p> <p>6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p> <p>7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p> <p>8관 풍산개 (18세)</p> <p>색깔있는 영화선택 *www.cinuso.co.kr</p> <p>씨너스전대대D(4K)상영!!</p>
--	---	--	---